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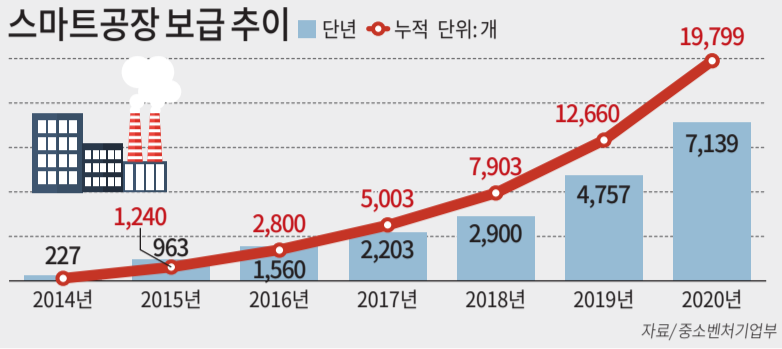
[기업 2분기 실적] 현대·기아차 보릿고개 딛고 '실적 새 역사' 03



Economy

코스피	3250.21 (+34.30)	코스닥	1050.25 (+8.22)
금리 (국고채 3년)	1.397 (+0.014)	환율 (원-달러)	1149.90 (-4.10) (22일)

m-커버스토리



제조 혁신의 첨병 스마트공장 정책 바통터치 가능할까

차기정부 정책 운영은

중소·중견기업 생산 현장에서 제조 혁신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 문재인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3단계 보급'을 천명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마지막해인 내년 이후의 향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권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가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이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려는 제조현장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작년 말까지 1만9799개 보급 당초 목표 1만7800개 넘어서 생산성 30%, 품질 43% 개선 차기정부 정책따라 기업 희비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은 당초 목표치인 1만7800개를 훌쩍 뛰어넘은 1만9799개를 기록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가 곳곳에서 입증되며 수요 기업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해에만 목표치였던 5600개를 넘는 7139개를 보급하는 등 저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다.

내년까지 총 3만개를 목표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안에 2만3800개까지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2022년에 새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후 스마트공장 관

련 정책의 변화 여부다.

제조 현장 곳곳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보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이어가거나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경우 산업을 지탱하는 제조업의 혁신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정용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구축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스마트공장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대선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모집한 결과 초기엔 지원 경쟁률이 4대1 정도였지만 올해엔 28대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소상생형의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스코형, LG형, 현대차형 등으로 참여 대기업이 늘고, 정부 지원 외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곳도 많아지는 등 한마디로 '스마트공장 전성기'다.

중기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공장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0%, 품질은 43.5% 늘고, 원가는 15.9% 줄어드는 등 효과가 컸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증권사 5곳 올 영업익 '1조 클럽' 기대감

한국금융지주, 62% ↑1.4조 기대 동학개미 부진... 2분기 실적하락 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증권사가 속속 탄생할 전망이다. 반면, 2분기부터 동학개미가 거래 규모를 줄이면서 자연스레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곳이 올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영업이익 1조 1171억원을 기록해 업계 최초로 '1조 클럽'의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속해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가 1조3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564억원) 대비 62.39% 늘어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전년(1조

1171억원) 대비 11.42% 증가한 1조 2447억원, NH투자증권은 전년(7873억원) 대비 42.31% 증가한 1조 1204억원, 삼성증권은 전년(6780억원) 대비 58.32% 증가한 1조 734억원, 키움증권은 전년(9690억원) 대비 5.51% 증가한 1조 2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2분기부터 실적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증시 호황으로 지난 1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동학개미가 거래 규모를 줄여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B(기업금융)와 WM(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등 사업다각화가 활발하다.

전매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 중앙은행에서 조기 긴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유동성 여건 변화가 예상돼 증시 및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감안하면 브로커리지와 운용이익의 개선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투자활동의 정상화 속도가 관건이며 IB부문 수익의 지속확대가 증권사 이익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투자자 손실 보상 관련 비용이 발생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호조에 IB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의) IB수수료 수익은 130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1% 감소하나 전년 동기 대비 52.6% 증가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PF딜이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 비주거용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오피스텔 위주의 주거용딜 소식이 증가함에 따라 비전통적 IB수익이 유지되면서 견조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월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와 더불어 향후 종합금융투자(IMA) 시장 진출도 가능해졌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2020 도쿄올림픽' 오늘 개막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일본 도쿄 하루미지 올림픽 선수촌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태극기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IS

1800명 뚫은 코로나19... 'K-방역' 한계 왔나

거리두기 4단계 10일째 효과 없어 부산 102명 등 비수도권 비율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00명대를 넘어서며 하루만에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최고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된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K-방역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늘어 누적 18만41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주일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던 전일

(1781명)보다 61명 늘어 처음 18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16일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13명에 달한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 494명, 경기 363명, 인천 130명 등 수도권에서는 9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64.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102명, 경남 90명, 대전 81명, 강원 47명 등 총 5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를 연속 500

명대를 넘겼다.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40대 위중증 환자는 총 52명으로, 전 연령대 위중증 환자 대비 24.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거리두기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미 최고단계 조치가 시행중이어서, 4단계 연장 외에 다른 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 지급,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사진 뉴스IS
▲ 다시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설...靑 “논의한 바 없다”

▲ 與 대선 본경선 일정 재개...28일 첫 TV 토론
▲ 숭통 톤 대부업체...중개수수료 3% →2.25%로 낮춰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출범...“취약지역·세대 발로 뛴 것” /사진 뉴스IS
▲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안정적 전망 판단